

# 추가 확진자 발생 · 집단 감염 차단 행정력 집중

코로나19 확진자가 사실상 제로 상태에서 1년여 만에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던 장수군이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 지역감염 차단에 성공을 거두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공포에서 주민들을 안전하게 이끌고 있는 장수형 사회적 거리두기 등 장수군의 방역 대책을 살펴본다.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모인 어르신들



군청 출입구 열화상카메라



수영장 코로나19 방역

## 1년여 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장수군 신속한 대응

지난달 25일 장수군에 2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장수군이 발각 뒤집어졌다. 장수의 한 자활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와 B씨가 양성 판정을 받아 각각 전주 624번째, 장수 2번째 확진자로 분류됐다.

지난해 2월 대구로 의료 봉사를 갔다가 시골 독채에서 자가 격리를 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은 모범 격리자 김성덕 간호사에 이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국에서 청정지역으로 꼽히던 장수군에 약 1년 만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평소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모의훈련과 24시간 방역상황실 운영, 코로나19 전담 공무원 배치 등 비상태세를 갖추고 있던 장수군은 확진자 발생과 동시에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장수군은 군수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발생 및 대응 상황 보고, 접촉자 격리 및 확진자 가족 등 밀접접촉자와 관계자 57여명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완료했다.

다행히 검사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이들에 대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격리 관리 점검, 비상 물품 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백신 접종을 받고 있는 장영수 군수



백신 접종 모의훈련

## 공공 시설물 휴관 조치 백신 접종신속 추진

## 타 지역 행사 참여 자제 등 장수형 방역체제 마련

## 두번째 확진자 발생하면서 거리두기 지침 세분화

## 지역에 맞는 촘촘한 자체 방역수칙 수립, 장수형 거리두기 준수 당부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장수군이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장수형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하고 적극 실천한 것이 큰 효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장수군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지역에 맞는 촘촘한 방역 체계를 구축해 코로나19 원천 차단에 나섰다.

장수형 방역체제는 장영수 군수가 제시한 것으로 ▲타 지역 경조사·교육 등 행사 참여 자제 ▲타 지역 방문 자제 관내 관광지·역사유적 탐방 ▲타 시도 방문 후 능동적 자가격리 ▲타 지역 방문자 참가 행사·교육 참여 자제 ▲장례식장·결혼식장 음식제공 금지 등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군은 장수형 거리두기 지침을 더욱 세분화하고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주민들의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군 소속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안전과 청정장수를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특별 방역 주간을 운영하고 사적 모임 금지, 타 실·과 부서원 식사 및 모임 금지, 외부출장 자제 등을 권고·준수하고 있다.

장영수 군수는 "청정장수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군은 추가 확진자 및 집단·연쇄 감염 차단을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에 방역 및 군민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교관호 기자



# 전주천을 살립시다

##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